

화장실에서 우연히 본 글귀<가정>

저음으로 말할 것..
잔잔하게 웃을 것..
햇빛을 가득하게..
음악은 古風으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平和를 지킬 것..

지난주말 사소한 말다툼으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냉전 중이던 제게 가슴 깊이 박히던 마지막 구절..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平和를 지킬 것..”

말로 받은 상처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해독제의 말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상대에게 용서를 빌고 수용과 이해, 관심과 격려를 표현하는 기쁨의 전달을 매일 해보십시오.

“ 그 한 마디 말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미안해. “

부부가 싸움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을 못하라마는 상대방의 가장 연약한 부분(hot point)을 건드리는 것은
갑옷을 입지 않은 심장에 뾰족한 칼로 난도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가면 회복되나 말로 입은 상처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갑니다.

“나도 이제 지겹다. 아니 지쳤어.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끝내자 우리.”

“당신 집안 식구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양살면 되잖아!,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이 최악이야”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양금처럼 원망의 저장탱크에 쌓입니다.

잠복해 있다가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폭력과 폭언으로 마음에 상처가 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化粧室で偶然見た言葉<家庭>

低音で言うこと..
穏かに笑うこと..
光を一杯に..
音楽は古風で..
そして命をかけてその平和を守ること..

先週末ちょっとしたけんかで妻の心を痛くして冷戦の中だった私に胸深くめりこんだ最後の句節..
“そして命をかけてその平和を守ること..”

言葉で受けた傷は必ず“愛”という解毒剤の言葉で治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ます。
先に相手に許しを得て受容と理解、関心と激励を表現する喜びの伝達を毎日やって見てください。
“その一言があなたをそんなに大変にさせるとは分からなかったの、こめんね。”

夫婦が喧嘩をしてみるとどんな言葉も言えないことがないが、相手の一番か弱い部分(hot point)を触れることは鎧を着てない心臓に尖った刀で乱切りするようです。

刀による傷は時間がたつと回復するが言葉でついた傷は歳月がたつほどもっと膿んで深くなります。

“私ももうんざりする。いやくたびれたの。あなたから脱したい。終わらせよう私たち。”
“あなたの家族たちは変な人々だ。うちのご両親ならそのようにはしないだろう。”
“また見たくないの。分かれば良いじゃない！、私の人生であなたという人と知ることになったことが最悪だ。”

言葉による心の傷は沈澱物のように恨みの貯蔵タンクに積もります。
潜伏してから他の問題が起こった時もう一度傷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
暴力と暴言による心の傷は長年の歳月が経っても自然に癒されるのではないです。